

편의점 할아버지의 손편지 “꼬맹이들 건강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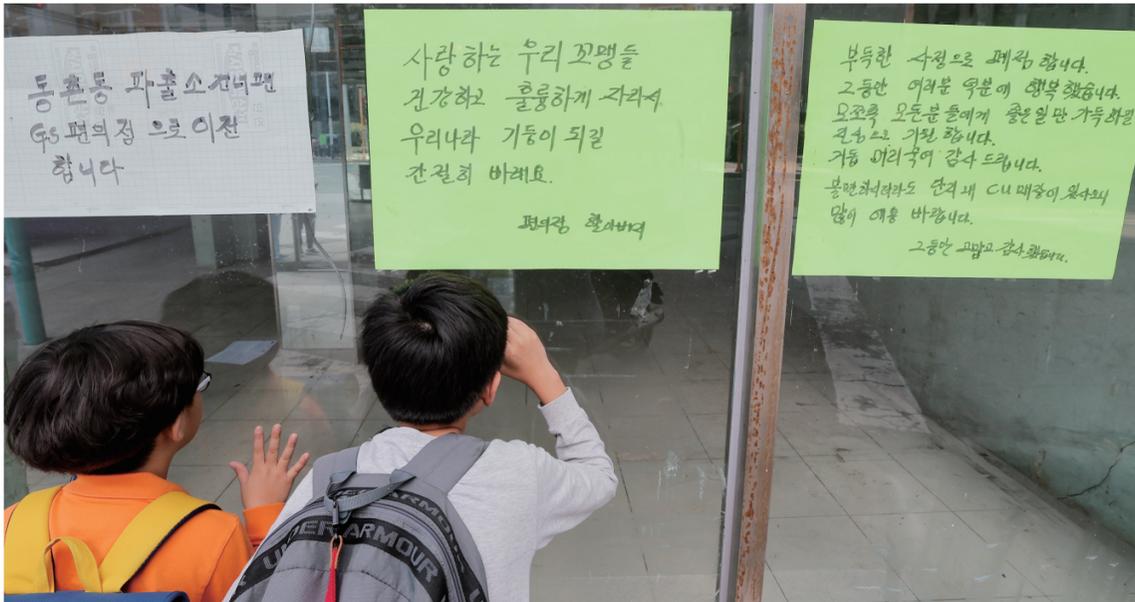
광주 효광초교 앞... 재개발로 이전 폐점 안내문에 감사의 마음 담아 학교 졸업 후에도 찾아와줘 '뿌듯' 학생 “친절하고 따뜻하셨다” 감사

“아이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예쁘잖아요. 학교를 가기 전이나 하교해서 맛있는 걸 사먹고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하루 행복이었죠.”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 사업으로 상점들의 폐업·이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 서구 광천동 효광초등학교 앞에서 12년간 편의점을 운영해 온 점주 할아버지가 학생들에게 ‘사랑의 손편지’를 남겨 감동을 전하고 있다.

효광초교 학생들을 비롯해 인근 학생들에게 ‘편의점 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박성남(67)씨는 30년의 세월을 추억으로 담아두고 지난달 18일 광천동을 떠났다. 학교 정문 앞에 있던 박씨의 편의점은 학생들의 작은 습터 역할을 했다. 단골 손님이었던 학생들은 학교를 가기 전이나 하교 후에 라면이나 간식거리를 사 먹기 위해 이곳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곤 했다.

광천동에서 18년 동안 작은 마트를 운영하던 박씨는 12년 전 이곳에 편의점을 차렸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박씨의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상점들이 폐업하거나 이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효광초교 학생들이 폐점 안내문이 붙은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내부를 살펴보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편의점은 어느덧 많은 학생이 학창 시절 추억을 간직한 장소가 됐다. 항상 친절하게 꼬마 손님들을 대해주던 박씨를 잊지 못해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시간을 내서 편의점을 찾았다.

박씨는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 모습까지 지켜보

다 보니 너무 신기하고 기특하다”며 “졸업을 하고 나서도 편의점에 찾아와주는 아이들이 정말 고마워서 더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장사를 이어오던 박씨는 지난달 18일 동천동으로 편의점을 옮기게 됐다. 광천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때문에

매장 이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효광초 학생들을 두고 다른 곳으로 매장 이전을 결정한 뒤에도 발걸음이 무거웠다. 초등학교와 가장 가까웠던 박씨의 편의점이 사라지면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편의점까지 한참 걸어가야 할 처지에 놓여서다.

박씨는 폐점한 편의점 입구에 정성이 가득한 손글씨 안내문을 내붙였다. 박씨의 안내문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느라 우리 꼬맹(이)들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나라 기둥이 되길 간절히 바래요’ 등 학생과 손님에 향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박씨는 “급하게 매장 이전을 준비하게 돼 아이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손편지를 적게 됐다”며 “아이들이 준 밝은 에너지 덕분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는데 고마운 마음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늘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지난달 18일 새롭게 문을 연 동천동 매장에서 박씨는 시니어 직원들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힘이 닿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다는 박씨는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등 남몰래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2면에 계속

정성아 기자 sangja.jeong@jnilbo.com

“학생독립운동 정신으로 5·18헌법전문 수록”

광주시는 3일 제95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지금의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는 학생독립운동의 정신과 핏빛으로 물든 희생에 발 딛고 서있다”며 “그 정신을 5·18헌법전문 수록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제에 항거해 등교와 시험을 거부하며 거리로 나선던 그날의 순국선열들을 우리는 기억

한다”며 “광주 학생들의 자주독립만세의 외침은 전국으로, 해외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이자, 일제강점기 최후의 전국적 항일운동이 온 대지를 불사르는 한 알의 불씨가 되어 타올랐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1929년 학생독립운동의 서곡이 광주에서 그렇게 시작됐다”며 “나라 잃은 설움과 독립에 대한 열망은 치열했

던 독립운동으로, 5·18민주화운동으로, 6·10민주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큰 강이 되어 흘렀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아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힘을 모으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광주시는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를 넘어 시민의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뚜벅뚜

95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광주서 시작... 현대사 관통 큰 강”

벽 나아가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제95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앞에서 ‘너의 맘 속에, 나의 맘 속에’를 주제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정에 국가보훈부장관, 강기정 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각계 대표와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 운

동 참가학교 후배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은 이듬해 3월까지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320여 학교 5만4000여 학생들이 등교·수업·시험을 거부하는 동맹휴학과 시위에 나서 국내외 독립운동을 크게 자극했다.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학생 중 582명이 퇴학당했으며 2330명은 무기정학, 298명은 강제 전학이라는 탄압을 받았다.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학생독립운동은 3대 항일투쟁으로 인정돼 지난 2018년부터 기념식이 정부 주관 공식행사로 격상됐다. 노병하 기자

함께 연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 일 시 | '24. 11. 6.(수) ~ 11. 8.(금) 3일간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송암스포츠타운)

| 온라인 | www.regionexpo.kr

